

大施主 李□□ 造

成

□□ 年五月 造

이들 銘文은 字徑 一·三寸 内外이다. 造成 年代가 나와 있으나 磨滅 原因 脫落으로 年代의 判讀이 어려워 遺憾이다.

### 新羅三山 第三次調査略報

鄭 永 鎬

新羅三山學術調査團의 現地踏査는 今番이 第三次로서 지난 五月一日 부터 十日間 全委員의 參加로 實施되었다.

이번 調査의 目的地는 月城郡 斷石山과 淸道地區였는데 當初부터 調査團을 二個班으로 편성하여 出發했다.

斷石山調査班은 黃壽永 洪思俊委員을 비롯 申榮勳 金東賢兩氏가 現場에 머무르면서 上人岩 神仙寺의 石窟寺院址 發見과 佛像 十軀 및 諸遺構를 實測 拓本하는 作業이 進行되고 한편 이곳이 金庾信將軍을 中心한 花郎大道場이었음을 確認하는 등 多大한 成果를 올렸다.

淸道地區는 秦弘燮 李基白 金英夏 鄭永鎬委員과 石宙善 尹容鎮 金和英 同學諸氏 그리고 陸軍에서 陸士의 李康七 許善道 兩氏가 合勢하였고 途中에는 團長 金庾基博士께서 參加하였는마 一行은 上人岩을 中心한 斷石山과 富山城一帶의 調査를 二日間 實施하였으며 아울러 永川菩提碑를 再調査하여 새로히 銘文을 判讀하였다. 淸道는 新羅三山의 하나인 穴禮가 位置한 곳이라 하여 着手하게 된 것인데 筆者는 始終이 地域을 담당하였기에 그 調査內容을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淸道邑에서 北쪽으로 竹羅洞丘陵에 吠城이란 土城의 遺地가 있어 現在도 二國期の 土器片이 蒐集된다. 이 城은 古伊西國의 本據이었던 現伊西面의 東方에 자리잡고 있어서 역시 伊西小國의 鎮山에 築造되었던

防禦城 役割을 하였음에는 틀림없다. 지금이 城內에는 餅寺가 있어서 그에 따른 諸附屬建物이 遺存하며 嘉慶年間の 幀畫도 數幅 奉安되어 現寺刹의 事蹟을 짐작하게 한다.

淸道郡內는 거의 山岳地帶로 四方에 高峻한 峯우리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 그 속에는 많은 遺蹟遺物이 있을 것인즉 今次는 邑內에서 西北쪽으로 ㅅ은 琵琶山만을 調査 하였다. 琵琶山의 現存 寺刹로는 湧泉寺가 제일 큰 편인데 現在의 建物은 모두 朝鮮時代 後期作이며 大雄殿 前庭의 三層塔이 高麗時代의 造成으로 推定되었다. 이 石塔은 二層基壇上에 塔身을 놓았는데 下層基壇 面石에는 各面 二區式의 眼象이 細長하게 陰刻되고 上層基壇에는 各面에 兩隅柱와 一撐柱가 整然히 刻出되었다. 倒置된 部材를 收拾하다가 初層身石 中央에 方形舍利孔이 施工된 것을 調査하였는마 七 cm×七·五 cm 深一〇·五 cm로서 아주 小形이었다. 各屋蓋石의 받침은 三段式이고 屋身받침은 二段式이며 落水面은 重厚하여 麗代의 樣式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寺刹에서 特히 注目되는 것은 石造浮屠

인데 西松堂最柏大師塔을 비롯하여 모두 六基로서 全高二·五 m식이다 朝鮮時代의 石鍾型浮屠이나 相輪部는 數層의 寶輪위에 寶珠를 올렸고 基壇部는 上下臺에 仰伏蓮이 整然하게 彫飾되어서 이러한 特殊한 樣式은 浮屠彫刻 및 樣式史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된다. 그리고 湧泉寺於口에 「湧泉寺洞下道路修治功表石」 一座가 遺存하는마 雍正 三年의 (一七二五) 建立으로 道路修治關係 記錄으로는 처음으로 珍貴한 金石文이라 하겠다.

琵琶山 頂上에 寺址가 있어 三層石塔과 佛座臺가 遺存하는데 石塔은 完全히 倒壞되어 各部材가 散亂하고 佛座는 下臺石만이 殘存한다. 石塔은 新羅式으로 單層基壇이며 三層屋身一石만 竝으면 完全한 復原이 可能하다. 佛座는 方形地臺石과 伏蓮石이 同一石으로 造成되었으며 一邊長一·五 m의 巨大한 臺座라 하겠다. 復葉八瓣과 上面圓座等의 手法이 新羅時代의 作風으로 推定된다. 이 곳에는 法堂址가 있고 礎石이 遺存하나 初創時의 遺蹟은 아니며 巨大한 石築(長三五 m 高七 m)만은 羅代의 築造임이 틀림 없다.

琵琶山 東南中腹에 位置한 水月洞의 庵址에서는 朝鮮時代 後期の 石

鍾型浮屠를 發見하였고 建物址도 數個處 調査하였다. 樂城洞 陶窯址에 서는 靑磁片이 多數 採集되었는데 모두 素紋으로 發色은 同一하게 靑色이라 하였으며 長基洞 石城은 石築이 거의 다 倒壞되었으나 그 規模는 뚜렷하였다.

豐角面 德陽里 一洞의 谷內畚中에 三層石塔一基가 遺存한다. 이塔은 近年에 倒壞되었던 것을 올려 놓았으므로 現在는 完全한 形態가 아니다. 그러나 埋沒된 基壇部와 倒置된 各部材를 收拾하면 露盤까지 完全히 復原될 것이다. 各屋身의 兩隅柱가 整然하고 屋蓋받침은 各層 四段、屋身 받침은 二段式이며 轉角에는 風磬圓孔이 四孔式 있어 壯嚴했던 石塔임을 알 수 있다. 落水面이 平薄하며 轉角의 反轉도 輕快한 羅代의 石塔으로 이 近處는 물론 當代의 寺址로 推測되나 現在로는 寺觀을 짐작할만한 아무런 遺構도 보이지 않는다.

華陽面 合川洞 二區 耕作地에 石造如來立像이 遺存하여 洞民들의 案内로 調査하였다. 近年까지 堂宇가 있어서 그안에 奉安하였었다고 하나 現在建物은 없고 그 遺址만은 뚜렷하다. 全高 二、一m의 이 立像은 臺座와 光背까지 同一石으로 造成具備하여 마치 甘山寺石造彌勒菩薩과 阿彌陀佛立像(國寶第八一號와 第八二號)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 臺座는 單葉仰蓮 六瓣으로서 그 위에 直立하였으며 光背는 舟形擧身光인데 陽刻一條線으로 頭身光을 區分하였다. 如來像은 螺髮의 頭頂에 肉髻가 크며 白毫는 없고 圓滿스러운 相好이다. 通肩한 法衣의 衣紋은 端雅하고 光背周緣의 雲紋과 火焰等이 流麗하여 統一新羅盛代의 作風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이다. 周邊 耕作地에는 羅代의 紋樣瓦片이 無數히 散在하므로 이 一帶가 當代의 寺址임은 곧 짐작되는 일이다.

淸道邑에서 東쪽으로 龍角山脈을 넘어 이른바 山東의 梅田面 長淵里 절골에 가면 洞名과 같이 큰 寺址가 있는데 現在는 耕作地化되어 周邊에 瓦片만이 散亂한다. 石燈材가 있으나 完存치 않고 다만 三層의 東西雙塔이 原位置에 遺存하여 當代의 伽藍을 推定케 한다. 兩塔의 거리는 一四、七m인데 東塔은 完全하나 西塔은 倒壞되었다. 그러나 各部材가 完全하므로 西塔의 復原은 可能하다. 兩塔은 同一한 樣式手法으로 二層基



長淵里 東西三層石塔中 東塔

壇上에 놓였는데 上·下層의 基壇面石에는 共히 兩隅柱와 一撐柱가 刻出되었다. 各塔身의 隅柱가 整然하고 屋蓋의 받침도 그리하며 各層 四段式이다. 全高 五m인 이 石塔은 各身蓋의 樣式이나 部分的인 手法이 統一新羅時代의 典型으로서 特히 雙塔이란 點은 注目되는바라 하겠다. 이 밖에도 伊西面의 土城址、梅田面 齡山洞의 千佛壇塔、錦川面 珀谷洞의 塔像과 諸山城址等이 調査되었으나 앞으로 數三次의 踏查에서 더 많은 遺蹟遺物이 發見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紹介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다만 여기서 今次의 內容中 德陽里 三層石塔과 合川洞 石造如來立像、長淵里 東西三層石塔等은 指定物로도 遜色이 없는 貴重한 遺品임으로 當局에서 早速히 指定하여 完全復原과 아울러 保存策을 講究하여야 될 것이다.